

세계건축축제, 올해의 건축으로 ‘LocHal 공공도서관’ 선정

<https://www.worldarchitecturefestival.com/WAF-World-Building-of-the-Year-Winner-2019>

<https://www.civicarchitects.eu/projects/lochal-tilburg>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2019 세계건축축제(World Architecture Festival: WAF)에서 ‘LocHal 공공도서관’이 올해의 건축(World Building of the Year)에 선정되었다.

네덜란드 틸뷔르흐(Tilburg)에 위치한 LocHal 도서관은 1932년 지어진 기관차 차량기지를 활용해 조성되었다. 원래 용도답게 면적이 넓고 층고가 높은 LocHal 도서관은 서가 공간과 1,0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넓은 층계, 공동작업공간과 회의실, 전시나 국제행사가 가능한 홀, 도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대형 발코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의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되 새로운 구조에는 검은색 강철과 콘크리트, 유리, 참나무 목재 등을 사용해 기존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열린 형태의 도서관 공간에는 이동이 가능한 6개의 캔버스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커다란 장막 형태의 이 구조물은 필요에 따라 도서관 공간을 분할하기 위해 활용된다. 예를 들어 가운데 카페 공간을 분리하거나, 넓은 계단 공간을 나누어 작은 강의 공간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식이다. 이런 장치를 통해 넓은 공간을 유연하게,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LocHal 도서관은 방문객들이 이곳에서 책을 보고 빌리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도서관’을 표방하고 있다. 도서관 건물 곳곳에 위치한 ‘작업실(Lab room)’은 도서관이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공동 생산하는 장으로서 기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건축축제의 심사위원들은 철거 예정이던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에 중요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프로젝트라고 평가하였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담아 각각의 목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커뮤니티가 결속하는 데 기여하는 건축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1. LocHal 도서관 전경
2. 도서관 공간에 설치된 대형 캔버스 스크린
3. 기존 건물의 구조를 그대로 활용한 내부 공간
4. 열린 도서관 공간

출처: Civic Architects 홈페이지.
<https://www.civicarchitects.eu/projects/lochal-tilburg> (검색일: 2019.12.10.)



©Sjip Bolleart